

201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국어 영역)

국어 영역

B형 정답

1	①	2	③	3	④	4	③	5	③
6	④	7	④	8	③	9	⑤	10	④
11	②	12	③	13	④	14	②	15	④
16	④	17	②	18	①	19	②	20	⑤
21	⑤	22	①	23	②	24	⑤	25	⑤
26	①	27	②	28	④	29	③	30	⑤
31	④	32	②	33	④	34	①	35	⑤
36	⑤	37	③	38	③	39	⑤	40	④
41	②	42	③	43	⑤	44	①	45	⑤

국어 영역

B형 해설

**** 화법 ****

- [출제의도]** 토론 참가자들의 공통 인식 파악하기
이 토론은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 토론이다. ‘찬성 측’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업 문제 및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 측’은 유연근무제가 시행되면 정규직을 비정규직 일자리로 바꿈으로써 안정된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입장은 다르지만 결국 양측 모두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출제의도]** 토론 전략 파악하기
‘찬성 측’은 외국의 사례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경험을 들어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④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가 미비하여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찬성 측’이 주장한 유연근무제의 긍정적 효과가 오히려 고용의 질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자료는 시간제근무자의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임을 보여준다. 결국 유연근무제

가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양산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는 ‘반대 측’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출제의도]** 발표 계획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사전 계획에서는 목 디스크 질환의 원인으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디스크의 손상을 들고 있었으나 실제 발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① 이 발표는 ‘목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말하기이다. ②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추간판’, ‘퇴행된 디스크’ 등의 전문 용어가 나오기는 하지만 다른 개념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작문 ****

-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평가하기
이 글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안을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② 학생의 건의문에 제시된 문제 상황은 아침을 먹지 못하고 오는 학생이 많은데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1교시 쉬는 시간에 빵을 판매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⑤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것이므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2의 자료에서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으나 ‘탄소 포인트 제도 활성화 대책 수립’은 개인이 아닌 사회 측면의 해결 방안이므로 ㉔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글쓰기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것은 (나)-2에서 찾을 수 있는 개인의 노력에 해당한다. ‘우리들의 영원한 쉼터인 지구’는 비유적 표현이며, 설의적 표현으로 끝맺고 있으므로 <조건>에 모두 부합한다.
①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②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설의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⑤ (나)-2를 고려한 개인의 노력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학생의 글’은 친구들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자고 설득하는 글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씩여진다면’은 피동사 어간 ‘쓰이-’에 피동 표현 ‘-어지다’가 결합한 것으로 피동 표현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었다. 이를 고친 ‘쓰여진다면’도 중복된 피동 표현이므로, ‘쓰인다면’으로 고쳐야 적절하다.

**** 문법 ****

-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하기
‘치러’는 ‘치르다’가 기본형으로, ‘치르-’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ㄱ’이 탈락한

것이다. ②의 ‘잠가’ 역시 ‘잠그다’가 기본형으로, ‘잠그-’가 어미 ‘-아’와 결합하여 활용할 때, 어간의 ‘ㄱ’이 탈락한 형태이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① ‘깨우다’가 ‘깨워’가 된 것은 규칙 활용으로, 모음이 축약된 형태이다. ③ ‘굽다’가 ‘구워’가 된 것은 ㅂ불규칙 활용이다. ④ ‘하얏다’가 ‘하애’가 된 것은 ㅎ불규칙 활용이다. ⑤ ‘듣다’가 ‘들어’가 된 것은 ㄷ불규칙 활용이다.

-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적용하기
‘다만 4’에 의하면, ‘의무’에서 ‘의’는 단어의 첫 음절이므로 [의]로 발음해야 한다. ‘무예’와 ‘예절’은 ‘다만 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표준발음법에 따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다만 4’에 의해 ‘예의’는 [예이], ‘의의’는 [의이], ‘절의’는 [절이]→[저리]로도 발음함이 허용된다.

-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표현하기
④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므로, ‘문제는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는 것이다.’로 수정해야 한다.
① 필요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부정 서술어 ‘안 된다’와 호응하는 부사인 ‘절대’로 바꾸어야 한다. ③ ‘회의를 갖는’은 외국어 번역투이므로, ‘회의하는’으로 고쳐야 한다. ⑤ ‘근절’은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아주 뿌리째 없애 버림’이라는 뜻이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사회악을 근절해야 한다.’ 또는 ‘모든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 [출제의도]** 문장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필요 있다’의 부정 표현은 ‘필요 있지 않다’가 아닌 ‘필요 없다’로 쓴다. ‘없다’는 ‘있다’의 어휘적 부정 표현이다.

- [출제의도]** 심리적 태도 파악하기
㉔은 엄마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단정’이 아니라 ‘사실의 전달’에 해당한다.

-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의문문 이해하기
2인칭인 ‘너’를 3인칭인 ‘그’로 바꾸면, ㄷ은 판정 의문문이므로, ‘모르던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① ‘엇던’이 쓰이면 설명 의문문이 되므로, ‘종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② ‘평안’이 쓰이면 판정 의문문이 되므로, ‘헛가’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ㄴ과 ㄹ은 의문사를 사용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⑤ ㄷ과 ㄹ을 통해 주어가 2인칭인 경우에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에 따른 구분이 없이 특수한 의문형 종결어미 ‘-나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 독서 ****

□ 출전: 안정복, <송암집>

- [출제의도]** 독서 방법 파악하기
1문단에서 주자의 말을 통해 끊임없이 의심하며 책을 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의 ‘나’는 「일야구도하기」를 읽으며 필

자의 생각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글의 필자는 ‘경전의 뜻과 견해가 다른 것이 있거든 그 견해가 다른 곳에 나아가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헤아려 보고’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책에 담겨 있는 본래의 뜻에 집중하여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문 ****

□ 출전: 강미라, <몸 주체 권력>

19. [출제의도] 집필 의도 파악하기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여, 행위하는 몸의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푸코와 메를로퐁티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푸코는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에서 요구하는 행동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본 반면,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인 세계에 주체적으로 적응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글은 몸을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를 규명하고자 한 푸코와 메를로퐁티의 견해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글이다.

2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푸코는 인간이 규정된 행동 양식을 따르게 되고, 이러한 규제는 몸에 각인되며 몸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은 인간의 몸이 정치·사회적 권력이 요구하는 규제에 의해 규율화 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와 달리 메를로퐁티는, 인간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주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은 인간의 몸이 세계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주목한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서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능숙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메를로퐁티는 B씨가 사고를 낼 뻔한 것을 환경 속에서 형성된 습관과 관련지어 설명할 것이다. 푸코는 A군의 행동을 학교에서 배운 훈육의 결과로 볼 것이다.

① 세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메를로퐁티의 견해이다. ② 몸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메를로퐁티의 견해이다. ③ 몸을 정치적 견해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은 푸코의 견해이다. ④ 몸에 각인된 규제가 몸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푸코의 견해이다.

22. [출제의도] 비판의 적절성 평가하기

메를로퐁티는 인간의 몸과 정신은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고 본 반면, <보기>에서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메를로퐁티의 입장이라면 인간을 정신과 신체로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 사회 ****

□ 출전: 김철환, <파레토 최적>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파레토의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글로, 그 특성과 한계 및 의의 등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파레토 최적에 관한 개념을 1문단에서 밝히

고 있으며, 그 특성은 글 전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파레토 이론의 한계를 3문단에서 밝히고 있으며, 그 의의는 한계와 관련지어 4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다. ④ 파레토 개선과 관련된 구체적 상황은 2~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파레토 최적의 상황을 파레토 개선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영회는 ①에서, 철수는 ④에서 만족도가 가장 크기에 ⑤는 적절하지 않다.

④의 상황에서 철수는 최초와 동일하게 6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철수는 배에 비하여 사과에 대해 2배의 만족도를 얻기에 만족도는 2배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영회는 두 과일에서 얻는 만족도가 동일하기에 최초와 같은 숫자인 6개를 갖게 되면 그 만족도는 동일한 것이다. ⑥의 상황에서 철수는 전과 달리 3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2배의 만족도를 갖는 사과를 갖게 되기에 만족도는 결국 동일하다. 그러나 영회는 총 과일의 수가 9개로 늘어나기에 결국 만족도는 1.5배 증가한다. ㉠의 상황에서 철수는 최초와 달리 4개의 과일을 갖게 되나, 2배의 만족도를 갖는 사과를 갖게 되기에 만족도는 결국 증가한다. 또한 영회는 과일의 수가 8개로 늘어나기에 만족도는 증가한다.

25. [출제의도] 핵심 내용 파악하기

더 이상은 좋아질 수 없는, 양측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황이 파레토 최적이며 이해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이러한 파레토 최적의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파레토 최적 이론은 손해가 없으면서 효용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설명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 과학 ****

□ 출전: 프레드릭 외, <뇌우와 토네이도>

2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번개가 발생하면 주변 공기가 압축되어 밀도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 차이가 충격파라는 파동이 되어 공기 속에 전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천둥이다.

② 3문단을 통해 번개가 발생한 후 주변 공기가 압축되고 그 결과 천둥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번개보다 천둥이 더 먼 곳에서 발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소리와 빛의 속도 차이는 번개 발생 후 천둥소리를 듣기까지의 시간을 통해 번개 발생 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천둥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④ 2문단을 통해 습한 공기와 지표면의 불균등한 가열로 적란운이 형성되어 벼락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지표면의 균등 가열에 의해 벼락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을 통해 적란운이 발달하면서 적란운의 하단부에 모인 음전하를 띤 물방울로 인해 지표면의 전자가 밀려나며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지표면의 양전하의 양이 증가하여 적란운이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A]에서는 적란운의 발생, 전하가 적란운 내부에서 상·하부로 분리되는 원리와 과정, 적란운 발달로 인해 지표면의 전하 분포가 변해 전위차가 증가하여 벼락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모의 번개 발생 실험으로, 벨트의 작동으로 생긴 마찰 전기로 인해 두 구 사이의 전위차가 증가하여 스파크가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은 양전하가 큰 구 쪽으

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적란운 속에서 양전하를 띤 상대적으로 가벼운 얼음 조각이 상승 기류에 의해 적란운 상층부로 상승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지만 공기 중의 수증기가 증발하는 것은 전하가 나누어지기 전의 단계에 해당하므로, 전하의 이동과는 관련이 없다.

**** 예술 ****

□ 출전: 크리스티앙 메츠, <영화의 의미 작용에 관한 에세이>

28.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영화의 시퀀스를 구성하는 요소와 개념에 대해 설명한 후, 씬의 제시 방법에 따른 시퀀스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시퀀스의 연결 방법과 효과, 시퀀스의 길이에 따른 특징을 설명한 후 영화를 감상할 때 시퀀스 분석이 지니는 의의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의 발전 과정과 시퀀스의 상관관계에 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29.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E에 사용된 자막은 D와 E 사건 사이의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표지에 해당하나, A와 C의 사건에 동시성을 부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①, ② A에서 D까지는 ‘서영’과 ‘현우’가 있는 공간을 교차로 제시하며 ‘서영’이 ‘현우’와 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동일한 시퀀스로 볼 수 있다. ④, ⑤ E와 F는 자막을 통해 이별 후의 서영과 관련된 시간의 흐름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

30.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시퀀스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관객들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다음 장면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시퀀스를 부자연스럽게 연결하면 관객들에게 낯선 느낌을 주고 의아함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관객들은 시퀀스 연결 속에 숨은 의도나 구조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에 비해 ㉡은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관객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고전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장국진전>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전쟁터를 배경으로 이 부인과 다른 인물들의 대결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장면에 대한 과장된 서술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이 비극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32. [출제의도] 사건의 특징 및 기능 파악하기

[B]와 [C]에서 천원왕, 달마왕과 대결하는 이 부인의 영웅적 면모가 드러난다. 하지만 이 부인이 전쟁을 하는 명분을 확인할 수는 없다.

① [A]에서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국진의 병을 치료한 이 부인의 비범한 재주를 알게 되어, 달마왕과 천원왕에게 진세를 바꾸자고 제안하였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진다. ③ [D]에서는 이 부인의 비린도가 천원왕에 의해 부서지지만 이 부인은 주문을 외워 일시적 위기를 모면한다. ④ [B]~[D]에서 패한 천원왕과 달마왕으로 인해 백운도사와 오금도사는 [E]에서 최후의 무기인 물병과 화전을 사용한다. ⑤ [B]와 [E]에서 이 부인은 선녀의 비호를 받는다.

3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에는 주인공 ‘장국진’을 도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여성 영웅으로서의 ‘이 부인’이 나타나 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여성들은 ‘이 부인’의 활약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34. [출제의도] 상황을 한자성어로 나타내기

㉠은 이 부인의 영웅적 능력으로 인해, 명나라를 침입한 달마왕과 그 무리가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의 상황을 나타내기에 ‘더 이상의 어찌할 방법이 없음’을 의미하는 속수무책(束手無策)이 적절하다.

㉡ 방약무인(傍若無人)은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 각골난망(刻骨難忘)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매우 큼’을 나타내는 말이다. ㉣ 수수방관(袖手傍觀)은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이다. ㉤ 연목구어(緣木求魚)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채만식, <명일(明日)>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범수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서술자는 사건 밖에 존재하는 전지적 서술자로, 범수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여 범수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이 글은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는 지식인의 무기력한 삶을 풍자하고 있다. 범수가 아들을 공장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이 무가치하다는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신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37. [출제의도] 갈등 파악하기

공간 A와 공간 B의 갈등은 식민지 현실에서 지식인으로서 겪는 무기력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범수는 고등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자신에 대해 고뇌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뇌가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 금은상에서 도적질을 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결국 도적질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온 범수 앞에 닥친 상황은 아들의 도적질이다. 이 때문에 범수는 아내 영주와 대립하면서 아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려는 아내와 달리 아들 ‘중석’을 공장으로 데려간다. 이를 정체성 회복으로 볼 수는 없다.

**** 고전시가 ****

□ 출전: (가) 황진이, <어저 내 일이야>
(나) 안민영, <임 이별 하울 저괴>
(다) 박문옥, <내게는 원수가 업서>

3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와 (나)는 부채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을, (나)는 입과 이별하는 순간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리움과 아쉬움은 모두 입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때문이다. 따라서 (가)~(다) 모두 입과 함께 하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나)의 ‘꽃 아리 눈물 적신 얼굴’은 이별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시한 부분으로, 이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부분이다. 그러나 자연물인 ‘꽃’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것은 아니다.

㉠ ‘어저’에서 영탄을, ‘모로드냐’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제 구티여’는 ‘가라마는’과 관련하여 임이 행동의 주체임을, ‘보내고’와 관련하여 시적 화자가 행동의 주체임을 중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입을 보내는 행위와 입을 그리워하는 심리를 대비시켜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다리를 저는 나귀가 빨리 가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입과 함께 하는 시간을 연장하고 싶은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40.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감상하기

(다)는 임의 부재로 인한 슬픔을 개와 닭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다)에서 개와 닭은 입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원망의 대상으로 나타나며, 화자는 이들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 (다)와 <보기>는 모두 화자의 독백적 어조를 통해 입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다)는 중장에서, <보기>는 1~3행에서 유사한 구조를 지닌 문장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다)와 달리 <보기>에서는 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에 따른 입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다)의 ‘강강’은 입을 오지 못하게 하여 사랑을 방해하는 소리이므로 화자는 개를 원망하지만 <보기>의 ‘뚜루를 깰룩’은 떠나간 입을 떠오르게 하는 소리이다.

**** 현대시 ****

□ 출전: (가) 한용운, <님의 침묵>
(나) 김광균, <노신>

4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입과 이별한 상황에서, 인식의 전환을 통해 입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나)의 화자는 예술적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 몹시 어려운 가난한 현실에서, ‘노신’을 떠올리며 삶의 위안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화자의 부정적 상황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4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은 역설법과 대구법을 사용하여 입이 화자에게 절대적 존재였음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연쇄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님은 갔습니다’라는 시구를 반복하고 있다. ㉢ ‘황금의 꽃’과 ‘차디찬 티끌’이라는 대비적 의미를 지닌 시구를 사용하였다. ㉣ ‘그러나’라는 접속어 이후 이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슬픔’에서 ‘희망’으로 전환되었다.

4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하나의 굳세게 살아온 인생’은 생활인과 예술인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고단한 삶 속에서도 굳세게 살았던 ‘노신’을 떠올리며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 수필 ****

□ 출전: 김기림, <단념>

44.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의 글쓴이는 영웅의 삶과 속인의 삶을 대비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것과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을 영웅의 삶, 이와는 달리 약간은 욕망하고 약간은 단념하는 삶을 속인의 삶으로 대비시켜 진정한 삶의 자세라는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속인의 삶을 ‘골짜기 밑바닥’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욕망을 끝낸 후에 도달한 평온한 삶의 단계라 할 수 없다.

㉠ ‘수많은 아르네’는 산 너머 생각을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여 아버지가 되는, 욕망하다 단념해 버리는 속인이라 할 수 있다. ㉡ ‘무(無)에 접(接)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아주 단념해 버리는 수행승의 삶을 나타내고 필자는 이를 영웅의 길로 보고 있다. ㉢ ‘부단한 건설’ 역시 또 하나의 영웅의 삶의 모습으로 새로운 것을 욕망하고 추구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고상한 섭생법’은 적당히 단념하고 적당히 욕망하는 속인의 삶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